

교회 목표

신뢰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교
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천국일꾼으로 자라주시를...”

후반기 총현장학생 발표에 즈음하여

지난 수요일(8월 4일)에 열린 8월 정기당회에서 259명의 젊은이들이 2004년도 후반기 장학생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6월 정기당회에서 장학생 선발계획안이 확정된 지 두 달 동안 이루어진 철저하고도 공정한 준비와 심사 결과 선발된 후반기 장학생들은 앞으로 교회의 신앙적 지도와 성도들의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천국일꾼으로 양성될 것이다. 후반기 장학생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먼저 천국일꾼 양성을 교회의 큰 사명으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울러 이번엔 장학혜택을 받는 젊은 일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는 모두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총현장학금은 단순히 ‘교회장학금’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헌금으로 주어지는, 즉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장학금이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천국을 위하여, 학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질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든 천국일꾼으로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야 할 것이다. 천국일꾼으로서의 삶은 몇 년 후에 시작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부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드리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담대히 걷는 귀한 천국일꾼들로 자라기를 바란다.

*장학생 명단- 본지 4면 하단

“시간과 마음을 예약에 놓으세요”

2004 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훈련, 8월 22일부터 등록 시작

9월 7일부터 2004년도 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주최 각종 훈련이 시작된다. 각 훈련에 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주관총현에 게재할 것이다. 먼저 아래의 일정을 숙지하고, 시간과 마음을 준비해 놓았다가 필요한 훈련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하자. 훈련에 참여하려는 성도들은 8월 22일(주일)부터 교육곡(제1교육관 2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주간성경공부 ·

교육기간: 2004년 9월 7일(화)~11월 16일(수) 10주간
시간·장소: 매주 화, 수요일 지정된 장소
대상: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들
개설과목 안내: 총 8개 과목

아고보서 (화요일 오전 10:00~11:30) 이태복 목사
열왕기상하 (화요일 저녁 7:30~9:00) 안치현 목사
고린도전서 (화요일 저녁 7:30~9:00) 류형복 목사

누가복음 (수요일 오후 2:00~3:30) 김교성 목사
마태서 (수요일 오후 2:00~3:30) 정재용 목사
시도행전 (수요일 오후 2:00~3:30) 김용목 목사
여호수아 (수요일 오후 2:00~3:30) 안창영 목사
전도서 (수요일 오후 2:00~3:30) 정진호 목사

*다음주 주관총현에 자세한 과목소개가 실릴 예정입니다.

· 교사양성부(제607기) ·

교육기간: 2004년 9월 12일(주일)~11월 28일(주일), 총 12주간
시간: 매주일 오후 3:00~4:30
장소: 배다니울
대상: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성도들

*“모든 수강자들은 교육기간동안 보조교사로서
희망부서에서 섬실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찬양대원양성부(제30기) ·

교육기간: 2004년 9월 12일(주일)~11월 28일(주일), 총 12주간
시간: 매주일 오후 3:00~4:30
장소: 제1교육관 304호
대상: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싶은 성도들
찬송을 잘 하고 싶은 성도들

· 총현전도대훈련 ·

교육기간: 2004년 9월 8일(수)~11월 3일(수), 총 8주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00~4:00
장소: 나사렛(문당동)총
대상: 총현전도대에서 봉사하고 싶은 성도들, 전도를 잘 하고 싶은 성도들

달고요한그말씀(5-7월 금요일메시지 요약)-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입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살인과 불신으로 가득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적인 소망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다면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을 알아보자.

먼저, 성경은 천국을 분명히 현존하는 세계로 설명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장차 올 축복이기도 하다(고전 15:50). 또한 천국은 새로 태어남으로써만 체험할 수 있는(요 3:3) 내직이면서 영적인 축복이다(롬 14:17). 천국은 성도들이 현재 들어있는 한 영역이면서(마 21:31), 동시에 미래에 들어갈 한 왕국이다(8:10)이기도 하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리주시실 선물이면서(눅 12:32), 동시에 현재 받아들이는 선물이기도 하다(막 10:15). 이렇듯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기 위해 한두 마디로 그것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천국을 바로 이해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미, 곧 나라(또는 왕국)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과하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천국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이 되었다. 그 누구도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았다 고 믿지 않는다. 그녀는 때로 불안과 공포, 범죄와 사기,

본래 왕국은 왕이 주권자로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동시에 왕국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개념 중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여 ‘왕국’ 또는 ‘나라’를 이해하면, 천국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왕국’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이 두 가지 개념도 부차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왕이 다스리는 권위, 왕의 주권, 왕의 통치권이기 때문이다(사 8:1, 대하 12:1, 단 8:23).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항상 천국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권을 가리키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사 103:19).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과 절대권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떠난 천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덧붙여 기도한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왕으로서 주권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통치하시기를 간구한다. 왜 그런 기도가 통치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스릴 영역이 없는 통치 역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라고도 말한다(막 9:47, 막 10:23, 마 7:21).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는 천국이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천국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시에 들어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은 천국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① 하나님의 통치 ②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한 영역 ③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시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의 한 영역.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5월 7일, 14일자 메시지 요약)

CHRISTIAN ASSURANCE

"(17) But whoever has the world's goods, and beholds his brother in need and closes his heart against him, how does the love of God abide in him? (18)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 or with tongue, but in deed and truth.

(19) We shall know by this that we are of the truth, and shall assure our heart before Him, (20) in whatever our heart condemns us; for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 and knows all things. (21) Beloved, if our heart does not condemn us, we have confidence before God; (22) and whatever we ask we receive from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1 John 3:17-22)

We live in a world filled with uncertainty. Nobody knows for sure what will happen one moment to the next. History shows us that the strongest of nations, the most powerful of leaders, and even the healthiest of physical bodies do not last. Even great preachers can fall before they die. Sadly, many of today's Christians have a nervous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they base their beliefs and practices on self-effort. Their Christianity comes from their own methods and ways of thinking. Real Christians have certainty. They believe in the word of God absolutely. Their Christian assurance comes from God's grace. What are real Christians sure of?

Real Christians clearly know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Many people think they know Jesus. but when push comes to shove, they first run elsewhere, like to a close friend or the hospital. When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other people thought He was, their responses were assorted, "Some say John the Baptist, and others, Elijah; but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Mt. 16:13). When Jesus asked his disciple, Simon Peter, who He was, he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t. 16:16). Simon Peter knew; he had a sure statement. Even under suffering, Paul sai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 (2 Tim. 1:12). Paul knew Jesus; he had no doubts. Many Christians are not sure whether Jesus is there when trouble arises; real Christians are certain of His presence.

Before continuing,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at every Christian comes to know Jesus as their Savior through God's grace, not from their own efforts. Simon Peter and Paul both clearly knew Jesus as their Savior because it was revealed to them from above (see Mt. 16:17; Acts 9:5). It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helps you to understand the Bible, not your own analysis. Jesus praye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intelligent and have revealed them to infants" (Mt. 11:25). Assurance is given to the humble, not the proud. Too many people think they know Jesus because of their works. These people talk like Christians, even act like Christians, but if Jesus Christ was not revealed to them through God's grace, then they do not have eternal life,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 Jn. 5:12). Do you know Jesus Christ as the Savior of your life?

Real Christians experience the spiritual change that salvation brings. Joh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had this experience. He wrote, "We know that we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1 Jn. 3:14). Do you know that you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Paul also had this experience, and thus was able to writ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2 Cor. 5:17). Real Christians, new creatures, ar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ar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their minds (see Rom. 12:2). They do not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drink the cup of the Lord and the cup of demons; you cannot partake of the table of the Lord and the table of demons" (1 Cor. 10:21). Real Christians have spiritual experience. Have you experienced salvation?

Real Christians are certain that the Holy Spirit dwells in their hearts, "We know by this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whom He has given us" (1 Jn. 3:24). Does the Holy Spirit really exist in you? Real Christians

are sure that He does, not because they heard about it, but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His presence within,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Rom. 8:16). Are you certain the Holy Spirit lives in you?

Real Christians are sure God listens to their prayers, "This is the confidence which we have before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1 Jn. 5:14). They are also sure that God answers their prayer, "And all things you ask in prayer, believing, you will receive" (Mt. 21:22), and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Jn. 15:7). Real Christians pray all the time because they are positively sure that God hears and responds to each one. Are you really sure that God pays attention to your prayers?

Real Christians have no doubt that their sin separates them from God. They know that they need to straighten out their sin problem, "We know that no one who is born of God sins; but He who was born of God keeps him, and the evil one does not touch him" (1 Pet. 4:18). They know that the blood of the Lamb, Jesus Christ, is their only answer. It is very clear to them that God is righteous, and no sin can stand before Him, "And if it is with difficulty that the righteous is saved, what will become of the godless man and the sinner?" (1 Pet. 4:18). As such, real Christians confess their sins knowing Christ washes them away,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Do you have any doubts about your righteousness?

Real Christians have assurance of another life,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Jn. 5:13). They know that their present, temporary earthly bodies are going to be replaced with eternal resurrection bodies (see 2 Cor. 5:1), and that they will live in a new Jerusalem,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t longer any sea. And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made ready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Rev. 21:1-2). Real Christians get excited about going home. Are you assured of another life?

Real Christians are positive that Jesus is coming again,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1 Jn. 3:2&3). They know when Jesus comes back that their going to receive an unfading crown of glory (see 1 Pet. 5:4). They also believe th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will be just as personal and visible as His ascension (see Acts 1:11). Are you positive Christ is going to return?

My dear friends, real Christians clearly know who Jesus Christ is because of God's grace. They experience His transforming power, and testify to His indwelling presence. They pray to God their Father in Christ's name, humbly confessing their sins, knowing He forgives and washes away all sin. They have peace concerning their future, and eagerly await Christ's return. Do you have these Christian assurances? Are you sure? 

다음을 주립 설교

그리스도인의 확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¹⁸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²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나”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17~22)



김성관 목사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 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부강했던 나라도, 가장 강력했던 지도자도, 가장 건강했던 사람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도 죽기 전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불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과 삶을 자신들의 노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믿습니다. 이들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함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은 제일 먼저 친한 친구나 병환 같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타라”는 제대 요한, 타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베라마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더냐”(요 16:14). 이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요 16:16). 시몬 베드로는 확신하게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난 가운데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어찌해서 잠깐 가지 중요한 믿음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요 16:17, 행 9:5). 이러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재이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라고 하셨습니다. 확신은 고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영성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알고 있습니까?

영적 변화와 성령의 내주를 확신함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하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니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거하느니라”(요일 3:14).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 있을을 아십니까? 바울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출어려 돌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세로워져 변화를 받기 세상을 달게 합니다(골 12:2 참고). 그들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의 전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성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고전 10:21).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체험했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계

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4).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거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에 관하여 들어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골 8:16).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기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의를 확신함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할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 5:14).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21:2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만일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15:18).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도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을을 분명하게 압니다. “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벧전 4:18).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얻게 된 의를 확신하십니까?

영생과 재림을 확신함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입고 있는 홀로몬 된 몸이 장래에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압니다(고후 5:1 참고). 또한 장차 새로운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압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1~2).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함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실 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리스도 불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자기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주시길 것을 확신합니다(벧전 5:4).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의 승천처럼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행 1:11 참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압니다.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 거하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아버지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죄를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潔淨하심을 알게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장래 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며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런 확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안수집사 칼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처가 되게 하려면...

김 규 석 (안수집사회 특별회)

인간은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심자가 달라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b)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답답은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중에서 늘 저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극한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 56:11)라고 고백하며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많은 말 가운데 이처럼 힘 있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다윗의 그런 믿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의 원천은 그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졌던 깊은 교제! 바로 거기에서 그의 믿음의 원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시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좋았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전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까닭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열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해 말하고 노래한다고 해서 올바른 예배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예배는 많은 군중 속에서 느끼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다윗 개인적으로 마음에 진실하게 품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으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사실에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드릴 때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예배처가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듣고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1)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방에 앉아 창조주가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느낄 때 심자가 사랑과 보혜의 능력이 빠져 사무치도록 감격으로 다가를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 예배는 신령한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며,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을 확박시켜 준다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중의 하나이며 그분의 요구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니 너희를 아무도 대서 불러내지 않는 기이한 빛에 둘러싸여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벧전 2:9). 그런데 예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에 넣은 죽자 아상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브라함도 어찌면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동 속에서 결국 찬란한 믿음을 꽃처럼 피워냈습니다. 신앙은 고민하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눈물, 한숨, 통곡, 슬픔을 통과해야만 참된 신앙의 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나 출세나 권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앙이며 예배입니다.

단기 선교지로 출발하여 골라야 할 것을 향해 나가야 하는 작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며 심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자가 복음의 뜨거운 감격을 날마다 갈망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예배처가 되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웃사랑 등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심자가 복음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저 거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다윗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내 주께서 저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 144:3).

2004 하반기 장학생 명단

전역 장학생(4명)

17(98): 권영일 37(01): 이복춘 47(02): 오경희 기윤영

대학원생(2명)

강진우	글로자	김성은	김지훈	김장배	김해진	나 라	바르게셀
박경배	박성진	박연미	박주희	백경섭	백은경	오철룡	윤인준
윤지영	이강희	이진아	이영희	차르갑	전보은	조수진	홍은숙
추진희	홍 의						

대학생(146명)

강지은	강한나	고혜영	구세훈	권동희	권신애	권에스터	권요셉
기하경	김 결	김광미	김국태	김규하	김린도	김요성	김민우
김민중	김보미	김상혁	김진영	김진주	김소연	김수현	김신영
김아론	김연희	김영은	김유진	김유경	김진경	김지원	김지현
김지희A	김지희B	김한미	김한바로	김현경	김현우	김혜선	김희연
김희진	남윤경	노미소	노지은	류승연	박근진	박민경	박주영
박준상	박하얀	박효진	배성준	배한희	백지연	변영현	변은정
서단비	송민규	송효기	안경호	안정훈	양현수	염혜실	오민진
오상현	오수미	오태석	오홍균	유미경	유미나	유승희	유재혁
유종훈	윤은진	윤지현	이대오	이목희	이민영	이병진	이병희
이보람	이창훈	이서재	이진민	이선하	이성훈	이승미	이우주
이은주	이은홍	이재진	이재욱	이정은	이주영	이주희	이태윤
이하나	이현범	이혜선	이효진	임지혜	장동수	장우민	장유진

장태은	장현민	전성권	전혜영	전해인	정국용	정다희	정명근
정유진	정은미	정지호	정혜영	정해진	조 형	조상미	조상아
조성환	조수진	조영중	조용민	조종현	조지용	최경아	최상혁
저은진	천한나	최 용	최두루	최애슬	최지승	최지현	최희희
추승민	추희은	한영우	한은정	한정우	허민경	허에스터	홍성은
홍성연	황정연						

고등학생(83명)

강 건	강민희	강용장	강재구	강지원	강지은	강진희	고혜진
고홍섭	권도형	권예란	김도홍	김민선	김신아	김성은	김소담
김예지	김예진	김유림	김유영	김재현	김재훈	김준환	김지선
김지영	김지예	김지윤	김지혜	김형규	김희리	김홍미	김희철
목영진	문가람	박 혁	박경준	박준하	박은지	박강혁	박정윤
박지영	백지수	성종규	송성배	송은혜	심재승	오라과	오연양
우기원	유선아	윤태원	이다정	이동욱	이동훈	이미영	이민정
이성구	이송이	이슬기	이승원	이재원	이지연	이지윤	이지훈
임유진	전진성	정병관	정성민	정세진	정재은	정지혜	조나영
조영백	조현아	주은혜	지석현	지은미	차병철	한명진	한태범
현슬기	현지훈	형윤옥					

이상 25명

장학증서 수여식 및 영성훈련 실시(대학원생·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2004년 8월 13일(금) 금요일집회 후 장소: 베다니홀

죄인인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처음 가는 선교로서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컸다. 죄인인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에 큰 기대도 됐지만 나 같은 죄인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내 생각에 불과했다. 그 곳에 가보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만 하셨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알게 되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전할 기회였다. 첫날 너무 외로워 보이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영혼이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을 때 우울하고 슬퍼보이던 표정이 매우 밝아지며,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그 다음에 한 이유가 이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알았다. 그렇게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찬송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됨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는 함께 간 동역자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고요 다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회복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정말 기도 응답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때 '꾸아오밍'이라는 12살 소녀가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예수님게로 달려나오는 착아름과 같았다. 꾸아오밍은 복음을 듣고, 귀가 안 들리는 할머니들께서 가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는 그녀가 그 땅을 변화시킬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역을 마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과 믿음이 생겼다. 나까지도, 이 죄인인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메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한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꼭 만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계속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한다.

이 록 회 (대학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교훈련 중 천정여머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선교를 갈까 말까하는 갈등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발 20여 일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어머니를 불러가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이 다시 한번 체득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심을 확인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것을 결심하고 선교를 떠났다. 우리 팀이 목적지에 도착하니 밝은 아침이었다. 우리는 숙소를 미리 준비해 놓지 못했지만 지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숙소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 우리는 감사하며 잠을 풀었다.

우리가 간 나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례적으로 야기 에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사건을 갖고 다닌다. 우리 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다시 사신 진정한 구원자임을 전했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곳에는 이미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있었다. 어느 병원에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증인 의료 선교단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십자가상을 느끼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내가 만난 17세의 어린 아이는 전도지를 받으면서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어떤 책에서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쓰여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하며 믿음을 견고히 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된다고 전했다.

사역 4일째 오후 갑자기 비가 내려 지하상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며 주소를 적어 주었고 우리는 이틀만 찾아갔다. 우리는 저녁에 그분이 경영하는 카페에 모여 전도지를 주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성경을 읽히는 한 분께 팀원의 성경을 선물했다. 그들은 우리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 지역을 떠나기 전날 밤에는 우리를 안내한 기사분이 영접기도를 하게 되어 기뻐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체감하면서, 이 귀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준희 (백택서, 4교구)

이반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9일(월)-8월 18일(수)	11교구 3지역	서영식	8월 11일(수)-8월 20일(금)	4교구 6지역	박우현	8월 12일(목)-8월 20일(금)	8교구 5지역	추병창	8월 13일(금)-8월 21일(토)	12교구 4지역	정원근
8월 9일(월)-8월 16일(일)	청년(1) 6	한승규	8월 11일(수)-8월 18일(수)	5교구 5지역	백복선	8월 12일(목)-8월 20일(금)	13교구 1지역	임은수	8월 13일(금)-8월 21일(토)	17교구 8지역	현승조
8월 10일(화)-8월 19일(수)	6교구 6지역	김달현	8월 11일(수)-8월 20일(금)	18교구 4지역	진화래	8월 12일(목)-8월 20일(금)	16교구 1지역	김병권			

안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30일(금)-8월 9일(월)	대학부29	윤우선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38	윤종국
8월 2일(월)-8월 10일(화)	8교구 8지역	남승송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33	박덕수
8월 2일(월)-8월 10일(화)	대학부30	김은심	8월 4일(수)-8월 13일(금)	대학부39	권오준
8월 2일(월)-8월 10일(화)	대학부31	이명숙	8월 4일(수)-8월 13일(금)	대학부37	이상돈
8월 2일(월)-8월 11일(수)	대학부32	조영규	8월 4일(수)-8월 14일(토)	14교구 2지역	전배나
8월 2일(월)-8월 13일(금)	1교구 6지역	최다홍	8월 4일(수)-8월 12일(목)	우동3	나승은
8월 3일(화)-8월 11일(수)	고등부1	홍원식	8월 4일(수)-8월 14일(토)	고등부4	최진재
8월 3일(화)-8월 11일(수)	고등부2	함창주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35	김윤환
8월 3일(화)-8월 11일(수)	14교구 5지역	박종욱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36	윤병식
8월 3일(화)-8월 11일(수)	16교구 7지역	양병진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4지역	이성복
8월 3일(화)-8월 12일(목)	1교구 3지역	구원식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6지역	김태영
8월 3일(화)-8월 12일(목)	2교구 5지역	박창식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9지역	이명희
8월 3일(화)-8월 12일(목)	5교구 4지역	장태동	8월 5일(목)-8월 12일(목)	13교구 3지역	권영주
8월 3일(화)-8월 12일(목)	8교구 1지역	김종선	8월 6일(금)-8월 13일(금)	청년(1) 5	임우연
8월 3일(화)-8월 12일(목)	10교구 3지역	김영록	8월 6일(금)-8월 14일(토)	4교구 1지역	이상식
8월 3일(화)-8월 13일(금)	11교구 5지역	박효은	8월 6일(금)-8월 14일(토)	11교구 2지역	김철환
8월 3일(화)-8월 12일(목)	대학부34	하형철			

신진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26일(월)-8월 3일(화)	10교구 6지역	김민호	7월 28일(수)-8월 6일(금)	12교구 6지역	이성철
7월 26일(월)-8월 4일(수)	대학부27	양복식	7월 28일(수)-8월 7일(토)	12교구 7지역	이영선
7월 26일(월)-8월 4일(수)	6교구 4지역	김대식	7월 28일(수)-8월 6일(금)	4교구 9지역	신선길
7월 26일(월)-8월 3일(화)	17교구 6지역	정선현	7월 28일(수)-8월 6일(금)	6교구 2지역	장서윤
7월 26일(월)-8월 4일(수)	15교구 2지역	강석화	7월 28일(수)-8월 6일(금)	18교구 2지역	김홍기
7월 26일(월)-8월 4일(수)	1교구 9지역	안병호	7월 28일(수)-8월 7일(토)	4교구 2지역	오순도
7월 26일(월)-8월 5일(목)	6교구 1지역	박경식	7월 29일(목)-8월 5일(목)	1교구 1지역	이보신
7월 27일(화)-8월 4일(수)	7교구 3지역	이항식	7월 29일(목)-8월 5일(목)	1교구 2지역	김신국
7월 27일(화)-8월 4일(수)	11교구 4지역	김연희	7월 29일(목)-8월 5일(목)	2교구 2지역	이정태
7월 27일(화)-8월 4일(수)	4교구 8지역	최진석	7월 29일(목)-8월 6일(금)	대학부28	이신동
7월 27일(화)-8월 4일(수)	7교구 5지역	전계성	7월 29일(목)-8월 5일(목)	18교구 5지역	이용현
7월 27일(화)-8월 5일(목)	애버다2	조종환	7월 29일(목)-8월 7일(토)	16교구 2지역	현준봉
7월 27일(화)-8월 5일(목)	4교구 10지역	류기명	7월 29일(목)-8월 7일(토)	14교구 추가	김단용
7월 27일(화)-8월 5일(목)	3교구 4지역	김상호	7월 30일(금)-8월 6일(금)	청년(1) 3	최지윤
7월 27일(화)-8월 5일(목)	3교구 5지역	이경재	7월 30일(금)-8월 7일(토)	2교구 3지역	구재환
7월 27일(화)-8월 5일(목)	8교구 2지역	추병창	7월 29일(목)-8월 6일(금)	청년(3) 3	기귀옥
7월 27일(화)-8월 5일(목)	7교구 1지역	박용기	7월 31일(토)-8월 7일(토)	청년(1) 4	이창호
7월 28일(수)-8월 4일(수)	청년(1) 2	전종철			

“도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정도할 문은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골 4:3a)

새사람이 되었어요

화요일, 수요일 유치원에 가지 못했어요. 선생님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었지만 제 맘 속에 성경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거든요. 우리반 예찬이와 사육이랑 저는 '예수님 나의 구주상조' 찬송을 아주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 벅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또 한번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두 번 태어나야만 해요. 알았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언덕을 오르기 도 했는데 음악이 조금 무서워서 가슴이 떨렸지만 꼭 참고 올라갔어요. 선생님께서 말을 잊겨주시고 새 양말도 신겨주시며 "이제 찬회는 새사람이 되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 기분이 좋았어요. 여름성경학교에서 저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 정말 잘 말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찬희 (유치부 꽃 16번)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세요

원구름 몽게몽게 피는 날, 나는 성경학교에 갔다.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잤다. 신기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한데 엄마가 보고 싶었다. 성경학교에서 찬양, 성경퀴즈 등을 했다. 그 중에서 인형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얼마 개구리가 교회 가라고 아기 개구리를 깨웠는데 조금 더 잔다고 했다. 근데 개구리는 교회에 간다고 말하고는 탄 곳으로 가는 길에 소를 만났다. 소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저 높은 곳에 간다고 개구리가 말했다. 저 산에는 뱀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산에 갔다. 거기서 뱀에게 잡아 먹힐 뻔했을 때 개구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했더니 뱀이 도망가고 엄마가 찾으러 왔다.

내가 아기 개구리라면 일어나서 교회로 갔을 텐데...

그리고 소였던 건 개구리를 꼭 교회로 데리고 왔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잘 되었다.

밤도 하나님 집에서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이 있었다.

모기가 나를 너무 많이 물어서 속상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낮게 해주테니깐.

엄마가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하셨다. 얼마 이상하다.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도 모르는가보다. 내년 여름 성경학교 댔 친구를 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성원 (유년부)

거듭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신나는 여름성경학교 시간들... 감사해요. '다윗과 골리앗' 성경과 '예수님을 만난 작개'로 인형극 그리고 나팔을 만들어 찬송하며, 글 없는 성경책도 만들고, 헌옷 벗고 면류관 쓰고 행진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단을 걸어 올라간 후 새죽식도 했어요. 카드 뒤집기 게임과 생전 처음 줄다리기도 해 보았어요.

즐겁고 신났지만 걱정도 있었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저에게 아직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장난꾸러기일 때가 많거든요. 성경학교 때 배운 것처럼 즐겁고 신나는 '주님의 어린이'로 거듭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김은석 (유치부 꽃 12번)

여름성경학교가 좋다

신나고 재미있는 여름성경학교가 참 좋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과 율동을 할 때 기분이 좋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물에 대한 말씀이 재미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물은 어리석었다. 나도 사육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고 다윗처럼 현명하게 살아야겠다. 아들이 죽을 뻔한 청개구리 인형극이 재미있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까스가 맛있었다. 잠잘 때에 친구들이 내 이불에 와서 뽀글었다. 그래서 귀찮았다. 그래도 나는 잘 잤다.

내년 여름성경학교 때는 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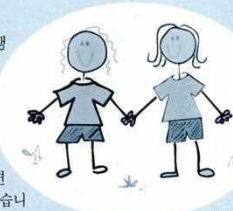
이은진 (유년부)

진짜로 거듭난 천국일꾼

친구의 진도로는 중현교회 중등3부에서 은혜받고 지낸 지 약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온 첫날 내가 아무 생각없이 앉아 있을 때 친구들과 설교를 열심히 듣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설교시간에 떠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중현교회에서의 수련회는 나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거듭난 천국일꾼'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에서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 '거듭난'이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천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천로역정을 통해서 감히 언덕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천로역정을 시작하면서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내



가 지고간 모래 주머니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프로그램의 형식적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낱에도 더운데 짜증나지 않고 했는데, 막상 그 모래 주머니가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고 한편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한없이 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돌아보면 내가 수련회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도 분명히 주님의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할 것을 나름대로 다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가롯 유다가 아니라, 나그네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거듭난 천국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지은 (중등3부)

교회탐방 ② 교회서랑

국수 한 그릇의 은혜

매주일 선교관 지하층 만나홀에는 아침 일찍부터 따뜻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하루,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 국수 한 그릇의 은혜도 함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식당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일에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교역자와 직원 그리고 복지관 식구들의 점심식사를 230인분 정도 준비하고, 수요일 점심(6:00~7:00인분)과 금요일 저녁식사(주문분)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결혼식(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국수 7,500인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월자 집사)

2. 총원교회 교인이라면 주일날 국수를 안 먹여본 분은 없었는데요. 주일날 국수를 위해 언제부터 준비하시나요?

주일 국수준비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1500명이 먹을 수 있는 4500ℓ의 욕수용 7개에 물을 가득담아 90℃로 끓인 후 토요일 아침에 100℃로 올려 1시간 더 끓인 후 그 물을 모두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아 넉넉한 양의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파래, 파뿌리, 굵은 소금, 초산간장, 외간장으로 간을 해서 아룁밤 동안 푹 끓이면 주일날 아침 8시에 완성됩니다. (윤경준 은퇴권사)

3. 음식이 상하기 쉬운 데도 여름철이라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특별히 신경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영양을 비롯해서 모든 조리과정들은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는 등, 내 식구를 먹이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정자 집사)

더우나 주후나 국수 국물을 육수통은 어를질이나 끓여먹기 어렵도록 아룁동안 물을 끓여 버리고 그 통에서 국수국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영숙 집사)

4. 주일날 국수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주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선교관 지하층 만나홀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11시 30분 부터 1시까지의 선교관 지하층 칼빈홀과 지하2층 메추라기울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요. (김월자 집사)

5. 주일아루 7,500인분의 국수가 만들어 지고 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주일 7시 1부 예배부터 저녁 5시 찬양예배까지 바쁘게 일하시는 일꾼들을 볼때 국수 한 그릇의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수를 먹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좋겠어요. (김월자 집사)

국수가 불어서 맛이 없게되는 것을 막기위해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국수를 삶다보니 많이 바쁘답니다. 하지만 50여 명의 교구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봉사에 주신 감사할 뿐입니다. (임정자 집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마을 뿐입니다. (윤경준 은퇴권사)

6. 식당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으세요?

수요일 점심과 금요일 저녁은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식권을 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교회의 규정에 따라주세요. (구영숙 집사)

음식 하나하나는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꼭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가져가서서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임정자 집사)

음식을 드시다가 남아서 버린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김월자 집사)

7. 기억에 남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주일날 시간이 나면 틈틈이 식당 식탁을 열심히 닦아 주시는 17교구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임정자 집사)

주일날 아침 8시부터 30분 동안 4300인분의 국수가 나갑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 매주 도와주시는 몇몇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구영숙 집사)

수요일과 금요일에 즐겁게 도와주시는 여직사님들이 계십니다. (윤경준 은퇴권사)

저울질 4,000포기의 감장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셨던 많은 교구 식구들이 생각납니다. (김월자 집사)

자신들의 힘으로는 큰 살림을 할 수 없다며, 늘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늘 고맙다는 감사말씀과 권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권/권집사)

다름 주일 찬송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다음 주일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보자.

1절: 나그네와 같은 고난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얻으니 이 얼마나 기쁜 복음의 소식인가? 이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

3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고 명예한 아버지 집에서 길이 살 수 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얻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확실히 받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찬양해야 한다.

이 찬송은 특히 일제시대에 많이 불리던 찬송 중의 하나로 성도들은 이 찬송을 부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힘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 중에 찬송을 열심히 불렀다고 한다.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 찬송을 묵상하여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자.

(한양위교회)

함께 하는 이름

김재선 (은퇴집사, 71세, 17교구)

건강 검진 때 폐암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수술 부위가 크기 때문에 현재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약복지로 받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모친도 폐암 판정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었고 또 그때에 환자본인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도 같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모든 치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합니다. 이 일을 통해 집사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85	정우영	19 대학부	전성경(1)	2307	유지나	4 청년1부		2329	이승남	19 청년2부	윤진주(9)
2286	이창호	5 청년2부	조수진(1)	2308	정민현	5 소년부	임병익(1)	2330	이광록	194 대학부	
2287	김재학	14 청년3부	양병진(16)	2309	김소연	8 청년2부	박종철(3)	2331	김은옥	8 청년1부	염기재(8)
2288	김민식	19 청년1부	신동현(15)	2310	홍유리	8 대학부	홍경선(1)	2332	수비사	19 외신부	이홍선(1)
2289	김동민	19 대학부	박재현(13)	2311	이신우	19 청년1부	홍원석(16)	2333	리말	19 외신부	유진현(12)
2290	김상후	19 고등부	조종현(7)	2312	박형만	12 청년1부	이달욱(3)	2334	나태희	19 외신부	이연재(19)
2291	김두름	19 대학부	이현주(14)	2313	이성혜	12 청년2부	이달욱(3)	2335	익산	19 외신부	이연재(12)
2292	김애선	11 청년2부	이진규(4)	2314	안유미	19 청년1부	함정숙(12)	2336	정은진	2 청년1부	박용희(4)
2293	박현주	9 청년1부		2315	김정환	18 청년2부	이성석(4)	2337	김재남	19 청년1부	정철환(1)
2294	김진희	4 청년2부	박우현(1)	2316	홍근성	18 청년1부	정혜원(7)	2338	박은숙	19 청년2부	정철환(1)
2295	지훈호	5 외신부		2317	김영주	7 청년1부	김경열(4)	2339	민준호	19 대학부	정다희(19)
2296	양효종	2 청년1부	조민준(2)	2318	김경은	8 청년1부	오영선(9)	2340	김시영	19 고등부	오영선(15)
2297	조민희	19 청년1부	나승민(1)	2319	김진영	12 청년1부	허정숙(9)	2341	이빛나	19 대학부	조성애(7)
2298	김미연	19 고등부	정지혜(16)	2320	송호은	19 청년2부	남영숙(17)	2342	김재민	19 중등2부	정준호(1)
2299	전성일	1 고등부	기하경(21)	2321	황은진	19 청년1부	남영숙(17)	2343	최복배	14 청년1부	김문섭(2)
2300	전동숙	18 청년1부	최영숙(18)	2322	이대빈	19 고등부	김지혜(3)	2344	전병민	19 청년1부	윤삼열(17)
2301	김학은	19 청년1부	송민현(19)	2323	김경자	2 청년1부	김정배(2)	2345	정민성	19 청년1부	윤삼열(17)
2302	서기연	15 청년3부	황규국(1)	2324	권미경	2 고등부	김정배(2)	2346	정민성	19 대학부	조현(15)
2303	김준자	15 청년2부	황규국(1)	2325	김준자	19 고등부		2347	차민희	14 청년1부	심은숙(4)
2304	주영수	5 소년부	이지은(2)	2326	윤미리	19 고등부	민우미(19)	2348	최 현	19 대학부	김규희(19)
2305	윤은상	4 청년2부		2327	김기희	19 청년2부					
2306	이은은	4 청년2부		2328	홍은하	19 청년2부	윤선주(4)				

※ 순회교회와 한 가족이 회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스

모임

1. 권사 2지회 월례회
일시: 11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이미웅전도회 월례회
일시: 12일(금) 18:00 장소: 제1교육관 501호

별세

1. 정읍시 태극고사 관현초 성년의 회로, 정읍교 집사의 시도, 17교 양자구지(가)의 회로, 20회 장래
2. 남원읍 신촌리 8교구 집사의 부친, 8교구 옥수나구/7월 30일 39회 장래, 8월 2일 장래
3. 운곡면 문덕초사 이상강 권사의 시도, 12교구 서경구/7월 30일 39회 장래, 8월 2일 장래
4. 김동초등학교 오대호 은파집사의 모친, 전록초 집사와 오대은 집사의 외조모, 6교구 삼천구/7월 31일 39회, 8월 2일 장래
5. 정미부 시도 하상인 집사의 남편, 12교구 한신구/8월 1일 39회, 8월 3일 장래
6. 김동의 집사 사영남 집사의 남편, 12교구 선대구/8월 1일 39회, 8월 3일 장래
7. 고령면 두문초사 박옥희 집사의 장남, 일소영 원환회의 지도, 12교구 종단구/8월 2일 39회, 8월 4일 장래

결혼

1. 김성관(군/김영문, 신용귀 씨의 아들)과 한주선 양(한승업 집사, 최정옥 권사의 딸, 6교구)/ 14일(토) 1500 삼성동 웨딩의전당 2층 도파르홀 (☎541-8000)

◆ 2004년도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4년 1월~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제1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사신표 2부(2004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 2004년도 감사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1. 감사기간 :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감사대상 : 전도위원회를 제외한 교회 각 부서
3. 대상기간 : 2004년 2월~6월
4. 감사장소 : 감사위원회실 (제1교육관 302호)

◆ 2004년도 하반기 수화교실 개강

1. 교육기간: 9월 5일~12월 26일 2. 교육시간: 매주일 오후 3:15~4:30
3. 교육과정: 초급, 중급, 고급, 통역 4. 교육장소 및 접수처: 교육관 207호 (에바다부)

2004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제자, 개동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제자	장소
8월 8일 (주말)	1교시 15:00~15:50	기초동 (김용익 목사)	국곡동 309호	교회동 (장 춘 목사)	국곡동 304호		
	2교시 16:00~16:40	성경개요 (최용환 목사)	국곡동 304호	구원동 (이정식 목사)	국곡동 304호		
8월 15일 (주말)	1교시 15:00~15:50	기초기독교개요 (임원덕 목사)	국곡동 309호	세례동 (하영진 목사)	국곡동 304호	유아세례동 (장진호 목사)	국곡동 304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국곡동 309호	문답	국곡동 304호		
8월 22일 (주말)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자(지체 친한동, 분동) 오후 4시 30분경까지 신청	유 아 세제자	(오후 3시, 갈릴렙교회) 오후 4시 30분경까지 신청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주일)
설교자/기도자	조규호/정성현	최성규/김신국	하종철/동방용운	장 훈/추병창	류병희/홍성욱	정충신/강덕필	여국근/최문실

예배담당 안내 (8/11~8/15)

날짜	예매	예매권 신청장	사 회	기 도	설 교
8/11	수요일		김교성	김영삼	성교를 위한 열정(창 16:15) 이종철 목사
8/15	수요일		이광수	김영희	복음의 질서(마 11:5-12) 안찬원 목사
8/18	금요일	소프르노-물송년/종동부 페스티벌리노/이정재 집사 외	여국근		이해복 목사
8/15	주요일		이광수	박광규	그리스도인의 확신(요한 3:17-22) 이재영 목사
8/15	주요일 II	오 신실하신 주 의 소프르노 음악여행(한양대 합창단 오케스트라)	고광환	김영선	그리스도인의 확신(요한 3:17-22) 김미련 목사
8/15	주요일 III	성자의 귀환 몸 의 트로피컬 댄스, 복고음(합창부 외, 오케스트라)	김영훈	정문수	그리스도인의 확신(요한 3:17-22) 정현민 목사
8/15	주요일 IV	구주 예수그리스도이여! 베풀어주소(한양대 오케스트라)	조규호	박영광	그리스도인의 확신(요한 3:17-22) 정광우 목사
8/15	주요일 V	내 영혼이 온종 일하여 내게 기쁨주(합창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최충원	김영희	그리스도인의 확신(요한 3:17-22) 김복자 목사
8/15	주요일전날		안영덕		오목 기도하며 전하는 열정(창 22:6-8) 이재영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제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제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 각 드러는 제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오전 11:00 2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1 오전 9:00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청년 1부	오무12:20	교육관 501호
영 아 부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청년 2부	오무12:30	교육관 507호
유 치 부	오전10:50	제2교육관 1층	청년 2부	오무12:30	교육관 407호
유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청년 3부	오무12: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소 망 부	오무12:15	강원 리포트
소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선교자클럽	오무12:15	교육관 204, 205호
중 동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소 망 부	오전11:00	북지교회 지하1층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예배다부	오전9:00~오후 1:00(연일)	교육관207호
중 동 3부	오전 9:30	교육관 501호	학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고 등 부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새가족회원	1 오전 9:15 ~ 오무 12:15	강원리포트, 배다나눔
대 학 부	토·오·일 4:00	제2교육관 1층	총합연의연립	주·연·교	교육관 407호
청년 1부	오전 12:00	제2교육관 4층	장신대학교예배교	주·연·교	총합 리포트
			국회교회예배교	오전 11:00	아 래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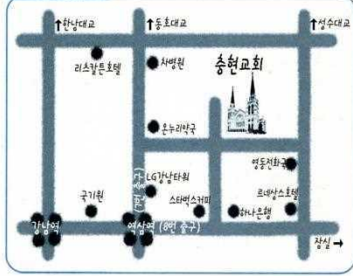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Ⅲ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French, Chinese, Japanese and Spanish are available at the Four Seasons Meeting.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and an Arabic,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본문

이종대 10.2주	정현민 10.4주	박기근 10.6주	여성기 10.7주	류병태 10.7주
이종철 10.2주	김영훈 10.2주	여근국 10.2주	김교성 10.2주	안창득 10.2주
방준영 10.2주	나광영 10.2주	정진호 10.2주	김용득 10.2주	고환관 10.2주
취건광 10.2주	김익진 10.2주	김성수 10.2주	장 준 10.2주	임현태 10.2주
이희식 10.2주	최종호 10.2주	하종철 10.2주	안치원 10.2주	이태복 10.2주
정중신 10.2주	양재용 10.2주	이성진 10.2주	조규호 10.2주	최성규 10.2주
이재영 10.2주	이경준 10.2주	이창수 10.2주	김진희 10.2주	윤승인 10.2주

- **인정**

정연희 92구	신동자 42구	윤인숙 32구	한영준 122구	김연식 172구
홍순애 102구	이옥주 62구	김말자 52구	안태순 82구	김정연 132구
조옥자 72구	강덕필 162구	최문실 112구	전은희 182구	김영순 12구
김정자 152구	이수경 192구	김정희 142구	이복순 152구	류진희 122구

■ 원양가도 카이그 ■ 저이디원지 나조산

■ 전임동참자 김소연

- **원전서그리니 취소세** (2019년)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트)

■ 시문장르

김의철 12교구	김은호 교구위원장
엄평석 교구장	장도용 장로회장
김경림 불사위원장	문용주 목회위원장
이창호 선교위원장	차신득 평생교육위원장
임무천 교구장	이갑재 12교구장
김단용 12교구장	황영인 교구장
원옥천 제1교구장	이형수 당회장
최용득 12교구장	이계인 교구장
박홍규 12교구장	권명호 교구장
이신호 새가톨릭교회	박찬식 제1교구장
정경길 목회위원	신상수 목회위원
이달용 재정위원	장철천 장로회장
장신현 기독교위원	안석현 교구장

노광연 동화 시가	오진국 책평위원
이 훈 한양대학교	남선우 남양주대학교
조인재 조인재	김종구 충청대학교
김광남 신경대학교	이종식 기독교대학교
전홍용 영남대학교	전호연 영남대학교
한승규 신경대학교	김영수 나주대학교
안동현 창원대학교	최희만 신영대학교
박덕양 서원대학교	이대식 고려대학교
조준환 대우대학교	배준식 고려대학교
최지윤 동신대학교	노영환 고려대학교
조계수 신경대학교	강철형 한양대학교
김승근 대우대학교	함원주 서울대학교

이병하 이병하정	이종대 이종대
정운호 정운호	이종철 이종철
최무경 최무경	방준영 방준영
안종욱 안종욱	위건방 위건방
이정우 이정우	이희식 이희식
김한기 김한기	정종삼 정종삼
김구형 김구형	이재영 이재영
정태두 정태두	■ 남전도
김영달 김영달	■ 여전도
■ 박철구 ■ 박철구	정연호 정연호
김영은 김영은	홍순애 홍순애
■ 육석민 ■ 육석민	조옥자 조옥자
	■ 김경자 ■ 김경자
	■ 전양강 ■ 전양강
	■ 전영득 ■ 전영득
	■ 협력선 ■ 협력선

현민 09.07.14	박근기 09.07.14
김영훈 09.07.14	여국근 09.07.14
나광영 09.07.14	정진호 09.07.14
김익환 09.07.14	김정수 09.07.14
최종철 09.07.14	하종철 09.07.14
양재웅 09.07.14	이성진 09.07.14
이경준 09.07.14	오창주 09.07.14
송요한 09.07.14	(외선박)
신동자 09.07.14	윤일순 09.07.14
이옥주 09.07.14	김갑자 09.07.14
강덕필 09.07.14	최문실 09.07.14
이수경 09.07.14	김경희 09.07.14
강임구 09.07.14	전영
김소연 09.07.14	
허요셉 09.07.14	(이집트)

상기	류병희
교섭	안장덕
용덕	조광한
훈	임현덕
지원	이태복
규호	최성규
준희	윤수인
영준	김연식
태순	김정연
은희	김영순
복순	류진희
희자	서준성